

論 叢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問題點

韓國銀行 調查部
一般經濟課長 安 商 國

< 內 容 >

- 一、머릿말
- 二、1966年 經濟의 成果와 問題
- 三、總資本形成과 貯蓄
- 四、高成長政策과 그 問題點

一、머릿말

韓國經濟는 60年代 後半에 이르러 飛躍的인 發展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主軸으로 한 投資事業의 加速的인 展開에 있다 하겠다. 지난 6月末에 韓國銀行은 1966年의 經濟成長率을 13.4%로 그 実績을 發表하였다. 이것은 戰亂被害에서 恢復段階에 있는 1953年의 成長率 25.7% 다음으로 前例가 드문 高度成長이다. 7月初에는 經濟企劃院이 이 推計를 基礎로 1967年의 年間經濟를 展望하고 1968年의 年次計劃인 總資源 予算案을 大統領께 報告한바 있다.

1968年의 總資源 予算이 意外에도 各界各層의 注意깊은 反應을 불러 일으킨것은 同案이 第2次 5個年計劃을 選舉公約에서 言及되었던 것 과 같이 3年 乃至 3年半으로 短縮強行하겠다는 政策意圖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는 祖國近代化의 旗幟아래 第1次計劃을 諸般隘路와 件에도 不拘

하고 精力的으로 遂行한 經驗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第2次計劃의 3年半 短縮의 強行은 第1次計劃當時와 經濟條件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싶으며 이미 經濟諸元에 信號가 나타나고 있음을 받아 드리지 않아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

二、1966年經濟의 成果와 問題

1966年의 우리나라 經濟는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量的擴大와 多樣한 政策下에 이루어진 構造改編에 對한 試圖가 있어 어떤 轉機가 마련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國民總生産의 成長率은 13.4%에 達하였다. (表1 및 2) 이는 主로 投資需要와 輸出需要에 依해서 主導된 點이 例年과는 달리 注目되는 事實이다.

消費需要가 相對的으로 G N P 成長에는 未達하여 低調相을 보였기 때문에 國民貯蓄率은 11.7%로 높았다.

<表1> 國民總生産의 成長率 (%)

	1961 ~ 66年平均	1966	
		実績推計	成長寄与率
1次産業	6.3	11.0	31.7
2次産業 (製造業)	13.5 (11.1)	17.0 (16.1)	30.6 (21.3)
3次産業	6.3	13.6	37.7
G N P	7.7	13.4	100.0
1次5個年 計劃期間中 平均	(8.5)		

資料：韓國銀行

<表 2>

投資率 및 貯蓄率

	1960 ~ 66年平均	1966年
国内總投資率	15.2	21.7
国民總貯蓄率	6.5	13.0
海外貯蓄依存	8.7	8.7

資料：韓國銀行

이와 같이 貯蓄率이 높아진 것도 처음있는 事實이다. 国内總資本形成도 그 配分에 있어 建物投資보다도 設備投資가 더 活潑하여 設備能力을 크게 向上시켰다. 이와 같은 高成長下에서도 深刻한 開發인프레는 顯在化함이 없이 全國都売物價指數는 8%에 그쳤으며 旺盛한 外貨需要에도 不拘하고 外貨保有高는 急激히 增加되었다.

動亂後 繼續되어 온 外國經濟援助는 이제 本格的으로 減縮을 보이고 있으며 民族資本의 蓄積은 貧困狀態를 免치 못하고 있는 어려운 事情下에서도 安定基調를 維持하면서 經濟自立을 爲한 基盤을 構築하고 近代化를 이루려는 決意은 最高調에 達하였던 것이다.

1966년에 政府는 經濟政策의 方向을 5個年計劃 最終年度로서의 實을 걸우기 爲한 果敢한 擴大成長政策을 一貫하였고 이 成長政策의 成功的 遂行을 爲해 對內的으로는 價格機構를 基軸으로 한 經濟秩序의 現實化 即 換率 金利 料金等의 正常化措置가 있었으며 對外的으로는 外資導入의 促進 對日國交正常化 및 貿易의 大幅的인 自由化等 開放體制에의 指向이 뚜렷하였다.

1966年の 高度成長이 外資導入을 主軸으로 한 旺盛한 国内投資의 피이크를 記錄한 輸出需要가 主導하였다는 事實은 이미 指摘한 바이다. 이러한 旺盛한 需要는 生産面에서는 2次産業 特히 製造業의 伸長을 가져 왔으며 또한 農業部門의 持續的인 豊作과 輸入規模의

놀랄만한 擴大로 財貨供給이 크게 늘어나 流通部門의 活動도 著增함으로써 全産業이 均衡적으로 成長에 貢獻하였기 때문이다.

國民經濟의 成長이 急速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民間消費는 比較的 緩慢하게 增加하였으므로 國民總貯蓄率은 11.7%라는 높은 水準에 達하여 國民貯蓄의 國內投資에 對한 寄与는 매우 큰바 있었다.

그러나 經濟開發을 爲한 過大한 投資資金의 調達은 그 海外貯蓄 依存度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高度成長을 主導했던 國內總投資의 寄与는 그 生産力效果보다는 建設業 運輸業等 活動에 따르는 有効需要創出 效果가 爲主였을 것이고 關聯産業波及 效果가 附加價值面에서 크게 增大되었을 것이다.

總投資는 産業用機械, 運輸機械等이 擴大供給되어 設備投資 住宅 및 公共事業投資가 特히 活潑하였다. 그러나 商街, 文教, 公務用建物投資는 低調하였다. (表 3)

이와 같이 1966년에 固定資本形成이 急激히 增加한 것은

첫째 最近 數年間に 締結되었던 外國借款이 集中的으로 導入되었고 이는 다시 其他 民間施設投資를 先導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1966年은 第1次 5個年計劃의 最終年度로서 同計劃을 終結하려는 政府投資 또한 크게 擴大되어 近來에 드문 投資붐을 形成했다.

그러나 1966年의 民間設備投資中에 主導的 役割을 한 外國借款은 政府支払保證에 依하여 導入하기만 하면 自己資本이 不足하더라도 輸入代替産業이라는 名目下에 運營이 可能한 條件이 附与되었고 더욱 그 製品의 市場이 國內에 이미 確保되어 있어 投資의 收益性과 安定성이 一時的이나마 保障된다는 至極히 有利한 立場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된다. 이러한 事實은 諸民間企業이 採算을 따지기 前에 競争적으로 外國借款을 獲得하려는 昨今の 事情이 雄辯으로 말해 주고 있다.

<表3>

国内総資本形成の構成

産業用途別

<経常市場価格>

単位：10億円

区 分	経常市場価格				1965年不変市場価格							
	1960		1965		1966		1967					
	1960	1965	1966	1967	1965	1966	1967	1968				
固定資本形成	26.54	99.0	117.64	99.3	205.99	92.3	61.71	98.8	117.64	99.3	129.63	91.9
農林漁業	3.40	12.7	18.67	11.5	24.88	11.1	6.97	11.2	18.67	11.5	22.16	11.2
鉱工業	5.66	21.2	31.95	27.1	67.05	30.1	16.15	25.9	31.95	27.0	33.73	30.7
社会間接資本	6.15	22.9	31.16	26.3	61.28	27.5	18.20	21.1	31.16	26.3	56.52	27.2
其他	11.23	42.2	40.36	34.4	52.83	23.6	25.39	40.6	40.36	34.5	47.22	22.8
在庫増加	0.20	1.0	0.84	0.7	17.12	7.7	0.77	1.2	0.84	0.7	16.75	8.1
総資本形成	26.80	100.0	118.48	100.0	223.11	100.0	62.48	100.0	118.48	100.0	207.38	100.0

이것은 앞으로 展開될 貿易自由化를 中心으로 한 開放經濟体制下에서 必然적으로 크로스·엠틀 國際競爭力에 對한 配慮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考慮가 欠如된 實例로서 同一業種에 여러個의 小規模借款 工場을 設立함으로써 單位當製品價格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技術單位 및 經營單位를 이루어 놓는것은 앞으로 重要한 問題로서 登場하게 될 것이다.

對外去來는 財貨와 用役의 輸出入 共に 크게 膨脹하여 經常去來上의 赤字는 그 度를 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外資導入 人力輸出에 따르는 海外送金の 急増으로 外換保有高는 繼續 增大되어갔다. 이로 因해서 海外部門에서의 流動性膨脹이 發生하기 始作하였고 이는 安定에 對한 攪亂要因으로 나타났으나 多幸히도 直接的인 購買力化하지 않고 그 一部를 家計의 金融資産貯蓄의 增加로 吸收되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事情으로 볼때 1966年과 같은 高度成長에도 不拘하고 이룩했던 經濟安定은 무엇보다도 國民貯蓄의 增大에 依해서 確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三、總資本形成과 貯蓄의 增大

年中 國內總投資支出은 그 規模나 構成內容에 있어 前年과는 크게 變貌함으로써 經濟成長에 이바지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같은 總投資를 뒷받침한 資金源泉을 살펴보면 支出項目中 比重이 가장 큰 民間消費支出이 GNP 成長率을 훨씬 下廻함으로써 國民總貯蓄率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다.

國民貯蓄은 年中 經常額으로 1,213億 원에 達했으며 國內總投資의 54.4%를 차지하였다. 그 構成에 있어서도 固定資本消耗充當金이 國民總貯蓄의 80%에 가까운 比重을 차지했던 前年과는 對照적으로 純

貯蓄이 크게 增加하여 國民總貯蓄의 切半以上을 차지하게 되었고 國內總投資에 對한 資金供給에 있어서도 前年の 13%에서 28%로 同比重이 크게 높아졌다. 國民總貯蓄을 主體로 보면 政府와 民間貯蓄이 모두 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民間純貯蓄의 增加가 더 顯著했다. 이와 같은 國民貯蓄의 增加에 따라 總投資의 海外依存率은 前年の 44.5%에서 39.9%로 크게 떨어졌다.

國民貯蓄의 增大에 가장 큰 寄與를 한 1966年 民間貯蓄增大의 內容을 보면 即 年中 國民總貯蓄의 增加는 民間部門의 純貯蓄 그중에서는 家計純貯蓄의 增加가 가장 顯著했으나 아직도 法人純貯蓄의 規模가 더 크다. 即 民間部門의 純貯蓄 392億원中 60%에 該當하는 236億원을 法人貯蓄이 차지하고 있으나 前年에 比해 28億원의 增加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國民純貯蓄增加에 對한 寄與는 그다지 크지 못했다 하겠다. 年中 非農業部門의 活動이 크게 伸張되어 法人利潤이 크게 늘었음에도 不拘하고 法人貯蓄의 增加가 低調했던 것은 法人에 對한 直接稅가 前年の 63億원에서 120億원으로 늘어났고 個人配當率 또한 前年보다 높아진 데 緣由한 것이다. (表 4)

<表 4>

國內總資本形成의 資金源泉

(經常市場價格)

單位：10 億원

區 分	1965		196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總 投 資	118.48	100.0	223.11	100.0
國民總貯蓄	60.75	51.3	121.32	54.4
純貯蓄	15.02	12.7	63.43	28.4
政 府	10.24	8.6	24.25	10.9
民 間	4.78	4.0	39.18	17.6

区 分	1965		196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家 計)	(-15.93)	(-13.4)	(15.63)	(7.0)
資本消耗充当金	45.73	38.6	57.89	26.0
政 府	3.78	3.2	4.83	2.2
民 間	41.95	35.4	53.06	23.8
海 外 貯 蓄	52.67	44.5	89.01	39.9
援 助	53.95	45.5	58.44	26.2
借 入	- 1.28	-1.0	30.57	13.7
統 計 上 不 一 致	5.06	4.3	12.78	5.7

資料：韓國銀行

이와는 對照的으로 家計의 純貯蓄은 前年の 負의 貯蓄에서 112億 원의 正의 貯蓄으로 反轉하여 年間 增加는 333億원에 達했으며 國民貯蓄增加總額 623億원의 切半以上을 차지하게 되었다.

家計貯蓄中 都市家計와 農村家計로 나누어 보더라도 貯蓄率上昇現象은 共히 顯著하였다. 都市의 勤勞者家計의 貯蓄率은 前年の -1.9%에서 3.6%로 처음으로 正의 貯蓄率을 나타냈고 農村家計에 있어서는 그 貯蓄率이 前年の 4.4%에서 10.5%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이 家計의 貯蓄率이 높아진것은 첫째 穀價를 비롯한 消費物價가 1965年以來 漸次 安定됨에 따라 國民이 健全한 生活態度를 가지게 되어 浪費 退藏 投機의 傾向이 減少되고 將來에 對한 生活設計를 하게 되었고

둘째 越南을 비롯한 海外로 부터의 送金은 貴重한 勞動의 代價로써 또한 臨時的인 所得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機會에 將來를 爲한 生活基礎를 닦고자 하는 貯蓄意慾이 強해졌기 때문이며

세제 金利現實化措置以後는 從來 不安定한 狀態에 있어 消費資金化 하기 쉬운 家計의 貯蓄餘力이 金錢信託 및 貯蓄性予金等 金融資産形態의 貯蓄으로 實現되었으며

네제 高度成長에서 오는 所得增加에 消費行爲의 性格의 一般性에 緣由하여 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四、高成長政策과 그 問題點

높은 投資率을 維持해 나가는 것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高度한 經濟의 成長은 長期에 걸쳐서는 우리의 至上課題이며 누구나가 所望하는 일이다. 그러나 短期 또는 當時에는 投資가 外貨獲得能力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勿論 計劃投資를 爲해 長期 低利의 借款을 獲得하는 것도 將來에 있어서의 外獲能力에 對한 展望이 있어야 한다. 1966年에 13.4%의 成長率背後에는 對外 借入 增加에 前例없이 큰 306億원에 達하고 있음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表4 및 5)

<表5>

對外取支計定

(經常市場價格)

單位：10億圓

區 分	1965		1966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財貨外 用役의 輸入	128.93	99.5	209.20	98.5
海外要素所得支払	0.66	0.5	3.17	1.5
經常支払	129.59	100.0	212.37	100.0
財貨外 用役의 輸出	63.61	89.2	106.91	86.6
海外要素所得受取	8.31	10.8	16.55	13.4
經常受取	76.92	100.0	123.36	100.0

区 分	1965		196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經常去來上の赤字 (= 海外貯蓄)	52.67	100.0	89.01	100.0
援 助	53.95	102.4	58.44	65.7
純 借 款 導 入	16.80	31.9	57.31	64.4
外 換 保 有 高	(63.3) -2.49	-4.5	(211.2) -26.46	-29.7
增 (-)	(-9.4)		(-97.5)	

註：1. () 内는 美百万弗임.

2. 外換保有高中 一部는 其他 負債償還에 允當되었으므로 海外貯蓄과 그 内容合計가 一致되지 않음.

資料： 韓國銀行 調査部

國內에 있어서의 總投資가 우리나라와 같이 國民貯蓄을 越等히 超過할 경우에는 그 「갭」이 반드시 對外的으로 實力以上の 輸入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多幸히도 動亂以後 第1次5個年期間中만 해도 相當한 額의 外國經濟援助(無償供與)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外援은 終熄段階로 다가서고 그 規模도 急激히 줄어들고 있다. 經濟發展에 奇蹟은 없다. 實力以上の 擴大는 未久에 인플레이션과 國際收支의 惡化를 招來하여 오히려 成長速度를 抑制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經濟論理라 하겠다.

第1次5個年期間中에 1962년에는 政府가 擴大成長政策을 一貫하여 財政政策의 基調를 設定하고 政府豫算膨脹에 財政安定計劃을 破棄하였으며 稅制의 改革을 實施하고 金利를 引下措置하였으며 金融貸出을 增大함으로써 輸出增進을 꾀하였다. 그러나 經濟는 急速度로 不安定要素를 胚胎하였으며 及其也는 6월에 通貨措置에까지 發展하였는데 이

의 副作用은 深刻한바 있어 1963~64년에 이르러서는 諸般政策이 急旋回하여 殘餘計劃期間中の 計劃을 修正하고 安定優先政策으로 轉換이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財政安定計劃이 復活되어 財政規模는 縮小되고 流動性規制, 食糧導入, 主要物資에 對한 價格統制에서 通貨量 規制로 硬化한바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綜合經濟政策이 急變하여 擴大政策에서 安定政策으로 移行되고 다시 1965年과 66년에 와서는 擴大成長政策이 再現하여 流通秩序의 現實化와 開放體系에의 指向等 實로 多様な 諸政策이 採択되어 7.1%의 目標成長率을 超過하는 8.5%의 5個年 平均成長率을 達成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全的으로 政策效果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GNP의 約 4割을 차지하는 農業部門이 높은 成長率을 가져왔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 農業生産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天候條件에 크게 支配되고 있는 것이다.

1965, 66年의 높은 成長率에 刺戟을 받아 向後 3個年半 동안에 年間 10%의 成長率을 確保하려는 當局의 決議는 叙上한 第1次 5個年 計劃中の 教訓을 벌써 잊고 있는것이 아닌가 疑問視된다. 過速으로 事故를 發生시키느니 보다는 作戰上 後退로 後方支援과 補給路를 開拓 然後에 다시 前進하는 作戰과 같이 只今은 財政金融政策을 為主로 하는 流通經濟面의 調整과 工業生産과 産業基盤間에 生길 可能性이 짙은 不均衡, 只今까지 거의 盲目的으로 導入해온 外資의 質的再檢討等を 補訂하여야 하는것等 解決해야 할 課題를 操心스럽게 다루어야 할 時期라 생각이 된다.

이미 우리 經濟는 첫째 只今까지 抑制해온 끊임없는 物價壓力이 加重되고 있고, 둘째 外換面의 流動性膨脹을 金融部門에서 收拾하느라고 極度로 金融事情이 逼迫해 있어 더 以上の 金融部門緊縮은 限界에 達한 感이 있고, 세째 電力을 비롯하여 輸送方面에서 社會間接資本의 隘路가 一部 露出되고 있다는 點等を 考慮할 때 性急한 擴大政策에 앞서서 調整段階의 設定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政府는 最近에 1967年 後半과 1968年 經濟의 目標로서 各年 10% 以上の 經濟成長率을 設定하였다. 勿論 2次 5個年計劃의 早期達成에 그 前提를 두고 있다.

1967年의 成長展望은 1967年 1~5月 産業生産指數가 前年同期 比較로서 17.7%에 達하고 1966年末頃에 生産能力擴張이 있는 肥料 精油 시멘트 機械部門 등이 正常稼動하여 同年中에 生産能力效果가 있게 되며 農林部門에서는 夏穀生産은 前年보다 5% 減産되었으나 秋穀生産展望이 아직 悲觀的은 아니므로 大体로 前年水産은 維持한다고 볼 때 投資事業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貿易量이 크게 增大한다면 流通部門 産業活動도 커질 것이므로 10%에는 多少 未達하더라도 過去 1961~1966年 平均成長率 7.7%는 上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問題는 1968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1968년에 10% 以上の 經濟成長을 뒷받침하기 爲해 3,175 億원 (1968年 予想價格)의 投資를 策定하고 있다. 그 投資率은 22.6%에 達하여 1966年의 그 높은 投資率 21.7%에 比하면 매우 意慾에 찬 予算이라 할 수 있다. 이 投資의 配分은 社會間接資本에 集中配分토록 하였다.

이 事業은 1968年 財政予算編成指針에서도 밝혀진바로 外部經濟造成에 財政投資를 集中하겠다고 했는데 交通輸送部門과 電力에너지部門의 投資의 產出效果는 長期에 걸쳐서 나타나며 資本係數가 가장 큰 部門들이다. 이 점에서 볼 때 1968年の 資源配分의 方向이 經常年의 成長效果에 있지 않고 長期展望에 두고 있으며 또한 1967年 7月 25日을 期해 中間 物議가 많았던 所謂 「네가티브·리스트시스템」이 採択되어 貿易政策에 一次 革新을 가져오는 措置가 實踐에 옮겨졌다. 앞으로 三段階로 区分하여 漸次 自由化度를 擴張하게 되겠지만 現在로서도 그 刺戟은 적지않을 것이다. 이 措置는 外資導入促進過程에서 非正常的으로 蓄積된 外貨保有額의 一部消費로서 結局 消費財를 導入하여 稅收을 늘리고 元貨를 吸收하며 消費物資의 供給을 늘려 開發인프레의 潛勢力을 防止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消費財導入은 一部 幼稚國內産業發展을 沮害하는 問題를 次置하고라도 國民의 消費需要를 刺戟하여 低購買力下에서도 消費率을 올릴 것이다.

消費率의 提高는 貯蓄率의 低下를 가져와 投資財源의 國內調達 即 國民貯蓄의 低下를 가져와 策定된 投資規模를 達成키 어렵게 할 것이다. 10% 成長에 必要한 投資를 期必코 達成하려면 結局 인프레의 調達이기 때문에 貿易自由化를 通해 期待한 當初의 目的은 그 意義를 喪失하게 되는 것이다.